'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생명존중 · 자리이타 실천하는 보살행

도선사 법회…장기기증 30 · 화장 6백78명 서약
11월까지 매월 전국 사찰 돌며 캠페인 펼쳐

교계의 장기기증과 화장(火葬) 서약운동이 본궤도 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 수덕사주지)와 현대 신문이 지난 4일 입춘을 맞아 방생(放生)도량으로 히는 서울 우이동의 도선사(주지 동광)에서 개최 입춘맞이 불공 및 생명나눔실천 법회'에서 30명의 들이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 이 자리에서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국토를 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화장을 유언으로 남 다고 서원한 불자도 6백78명에 이르렀다.

한해를 시작하는 첫번째 절기이자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입춘맞이 법회에서 불교계가 사후 장기기증 서약행사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기 몸을 보시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운동은 불살생계(不殺生戒) 정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길.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신문은 도선사 법회에 이어 오는 22일 오전 11시 울산 학성선원, 3월 28일에는 철원 심원사, 5월 화성 용주사 등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차례 이상 전국의 사찰을 돌며 화장 유언 및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4일 도선사에서 개최된 '입춘맞이 생명나눔 법회.' 불자들이 장기기증 화장서약 서명을 하고 있다.

"생명나눔은 생멸없는 삶"

생명나눔회장 법장스님 법문

'참회 · 방생도량 도선사에 봄이 돌아와 3천대천 세계에 꽃이 만발했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부처님의 으뜸 가르침인 불살생계(不殺生戒)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자신을 버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방생정신을 실천하는 보살행입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생각(我相)'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것은 곧 깨달음과 열반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행복이며,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행복추구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모두 비워 빈 그릇을 만들고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집니다. 아상을 버릴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육신은 한 조각 구름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런 생사와 관계없는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쓰기에 따라 생멸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화장운동 집착 버리는 일"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 법문

도선사는 청담스님 때부터 물고기 한 마리도 새 삶을 살도록 강조해 온 방생도량입니다. 불교 전통 장의의식인 화장을 널리 확산시키고, 내 장기를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시하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이 한낱 허망한 껍질이라면 고통받는 이웃에 장기를 나누는 일은 더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등신불이 육신을 소신공양함으로써 중생에게 무한한 공덕을 회향하고 있는 것이 한 예입니다. 불교가 거의 사라진 인도에서는 아직도 화장제가 일반적인 장례제도입니다. 우리에게서 불교를 배운 일본의 국민들도 대부분 사찰에 위패와 조상의 유골을 모시고 있습니다. 불법을 가장 찬란하게 꽃피운 우리나라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불가의 전통인 화장제도가 정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화장 풍토를 뿌리내리게 해 건강한 국토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합니다.

"껍데기불자 안되려면…"

현대불교 김광삼사장 인사말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참선을 아무리 많이 한들 보살행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껍데기 불제자에 불과합니다. 장기기증은 어렵더라도 헌혈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면 불제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생물학자는 사람의 몸이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포 하나하나는 독립된 생명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량수의 생명의식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 5장6부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육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가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고 했듯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내 몸도 병이 없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이 국토라면 무량수의 세포는 중생에 해당됩니다. 내 마음자리가 보시행을 실천하면 모든 세포가 환희심에 젖어 생명의식이 고양되어 건강해집니다. 장기 · 헌혈의 기증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국 60조의 생명을 살리는 방생이 되는 셈입니다.

기복탈피 보살행 앞장선 입춘불공
가족 · 신행단체 동참자 많아 눈길

도선사법회 이모저모

○… 교계에서는 이번 법회가 그동안 입춘때마다 행해진 자신과 가족의 건강, 승진, 재물 등을 기원하는 기복에 치우친 입춘 기도나 산림법회에서 벗어나 방생의 참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는 평가. 특히 그동안 혜명보육원과 혜명양로원등을 설립,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방생도량의 원력을 세운 도선사가 행사를 주관해 의미를 더한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화상과 장기기증운동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불교의 모범을 보인 것도 최근의 교계종 분규사태와 대비되어 주목을 끌었다.

○… 이번 법회에서는 모녀와 부가 나란히 사후 시신 · 장기증 등에 서약해 화제. 모녀 지간인 최선규(67 · 충남 천안시 성정동) · 이종옥(39 · 서울 논현동) 보살은 평소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어머니 최 보살의 뜻에 따라 모녀가 똑같이 사후 시신 및 각막 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한편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온 차기석(55) · 이정희(46)씨 부부는 함께 사후 시신기증에 서약했다. 부부가 한마음으로 삶을 회향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것.

○… 불교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도선사 보리수회(회장 박정숙) 회원 20명은 단체로 장기기증 및 화장 서약서에 서명했다. 종무소 등에서 행사를 지원하다 달려나온 회원 중 5명은 장기기증을, 15명은 화장유언을 각각 서약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장기기증 서약자

태현스님 한정자 전영선 최선규 이종옥 채순희 이정희 차기석 신옥순 김묘순 김미수 이숙 이강우 이경아 고영주 허남영 김선자 이완희 김형년 권오희 고준자 최병대 고인숙 송화자 김영식 조진현 오강석 최정분 김미숙 홍영기

화장유언 서약자

간종호 강경란 강광원 강기분 강동희 강복자 강숙희 강영숙 강영자 강정숙 강정자 강정희 강처례 강필남 강형칠 고금자 고영배 고은경 공정자 곽점순 곽춘선 구귀임 구동회 구민수 구연정 구필회 권경옥 권석란 권선화 권오숙 권운집 권위선 권윤옥 권이히 권장순 권현수 권화숙 기추라 김갑희 김건영 김경렬 김경애 김경옥 김경이 김경자 김광식 김광추 김금녀 김금란 김금례 김기환 김길순 김남염 김덕주 김동명 김득순 김만임 김명연 김명자 김명자 김명자 김명화 김명화 김무경 김무응 김미경 김복순 김봉님 김봉환 김분례 김분향 김삼형 김상고 김석순 김석이 김선숙 김선희 김성균 김성선 김성해 김송자 김송자 김수영 김수자 김숙희 김숙희 김순녀 김순녀 김순달 김순덕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화 김애경 김애진 김양금 김여순 김영덕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순 김영이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희 김옥례 김옥순 김옥애 김옥자 김옥희 김용순 김원중 김인자 김임숙 김재연 김점례 김점심 김정길 김정대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임 김정자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구 김종란 김증자 김진수 김진임 김진태 김청자 김청자 김춘란 김춘자 김칠성 김태선 김태선 김팔녀 김필라 김필순 김한복 김한숙 김핵자 김형자 김화형 김희라 김희옥 김희주 나금란 나상희 나순자 남분옥 남옥자 노강환노명수 노민호 노순덕 노순이 노용호 노유자 노희자 도치호 동광스님 류성열 류영렬 류옥열 류춘화 마법스님 모영숙 무애심 문귀남 문외자 민병수 박감례 박갑순 박강순 박경옥 박경옥 박구희 박금선 박노인 박두형 박만재 박말숙 박맹희 박복순 박부남 박상순 박상자 박상필 박소영 박순단 박순자 박양라 박영아 박옥옥 박영한 박영호 박옥분 박완순 박오 슉 박월순 박은서 박장년 박재임 박종자 박정전 박종례 박종순 박증자 박진하 박현옥 박혜경 박혜원 박홍자 박홍화 박효순 방귀진 방수자 배난옥 배인숙 배종진 백운화 백현희 법진월 변금자 변순희 보광화 보월성 보현행 봉지행 서금수 서금순 서남이 서삼순 서성문 서순례 서연석 서옥주 서윤석 서은순 서정자 서정자 서종분 서희순 석복례 선양순 성명수 성미자 성봉자 성순희 성옥희 성월선 손양호 손인숙 손재순 손정수 손태숙 손현숙 손훈자 송경복 송경순 송기애 송배식 송복례 송복순 송숙희 송영후 송완예 송정희 송팔희 송효숙 승달성 신금승 신기홍 신덕용 신명숙 신미일 신성철 신승연 신야근 신열우 신임순 신점순 신정미 신정숙 신정애 신해일 심명숙 심상덕 심재복 심재하 심재희 심현자 심희숙 안경자 안금자 안길순 안남숙 안명삼 안순희 안영숙 안옥련 안윤식 안장호 안춘자 양삼분 양정희 양천규 양태복 양희곤 어히숙 연현정 염민애 오남호 오동진 오병구 오선옥 오세영 오순단 오순희 오정신 오정자 우성희 우영숙 원대자 원복희 원석준 위영란 유남선 유삼순 유성구 유순남 유승옥 유옥자 유재숙 유정자 유춘승 유태연 유효준 윤경숙 윤경순 윤계춘 윤덕녀 윤복이 윤석려 윤송석 윤수명 윤여원 윤영미 윤영숙 윤옥희 윤인복 윤재희 윤점달 윤정옥 윤정옥 윤지의 윤차분 윤춘실 윤희봉 이경자 이경자 이경자 이계영 이관우 이금남 이금동 이금연 이금옥 이금용 이금자 이기련 이기선 이기숙 이기영 이기자 이길순 이길종 이남순 이동강 이동철 이동희 이명국 이명숙 이무자 이민영 이병하 이보창 이복숙 이상숙 이상일 이상임 이상진 이선이 이선이 이선자 이성구 이성희 이수남 이수호 이숙자 이숙재 이순복 이순옥 이순자 이순자 이연심 이연정 이연화 이연희 이영숙 이영순 이영순 이영순 이영옥 이영자 이영희 이옥봉 이옥선 이옥선 이옥이 이옥자 이옥자 이용래 이용순 이용자 이용학 이원기 이원숙 이윤경 이윤자 이은덕 이은수 이은숙 이은옥 이의렬 이인숙 이인숙 이인원 이일순 이임준 이재숙 이재순 이재옥 이정란 이정문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자 이정호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종관 이종국 이종배 이종선 이종숙 이종옥 이종임 이주란 이중석 이철의 이청자 이춘자 이태남 이한영 이향숙 이현숙 이혜원 이화진 이흔이 이희순 이희자 임란옥 임안순 임영자 임옥희 임정남 임창수 임철순 임춘년 임혜숙 자덕심 자월심 장관숙 장금봉 장기숙 장문자 장석모 장선옥 장세영 장인옥 장흥수 전금미 전남순 전병순 전선옥 전순옥 전순일 전승희 전영선 전윤례 전점순 전정례 전찬애 전향순 전희숙 정 미 정경례 정계수 정근환 정금수 정기준 정동순 정명자 정상구 정상예 정선예 정숙자 정순자 정순자 정순자 정순자 정연숙 정영덕 정영순 정영애 정유순 정유진 정윤화 정이애 정재수 정재순 정정숙 정정희 정천순 정팔만 정해남 정향란 정혜옥 조경순 조길자 조남숙 조병학 조삼순 조선희 조성두 조성재 조성출 조성희 조순례 조순자 조순화 조영훈 조옥자 조옥화 조은란 조은혜 조정임 조화자 조훈제 주봉근 주현희 주흥난 주희복 지기덕 지녕희 지정원 차기석 차미라 차영조 차용순 채순희 채영숙 채채봉 채춘순 천봉희 천성순 천하연 최경애 최경자 최경자 최귀분 최남임 최두란 최명희 최미라 최복순 최분옥 최선규 최숙자 최순자 최영자 최옥순 최용곤 최윤재 최은식 최응락 최인순 최재모 최정 최정훈 최지현 최춘주 최향순 최현아 최희영 최희자 평등심 하대진 한경희 한덕이 한명란 한복남 한봉수 한삼수 한수혜 한순애 한순옥 한연방 한영자 한익만 한정덕 한정자 한정희 한해숙 한혜란 함태숙 허 진 허문희 허순진 허은희 허준지 현수자 현순자 현원경 현정임 현형자 홍경분 홍계순 홍명라 홍복순 홍부례 홍석원 홍성렬 홍소근 홍숙자 홍영숙 홍운선 홍정표 홍팔순 황경서 황동주 황명선 황분이 황실장 황영자 황영희 황임순 황정숙 황정순 황정은 황정화 황차순 황판옥 황화자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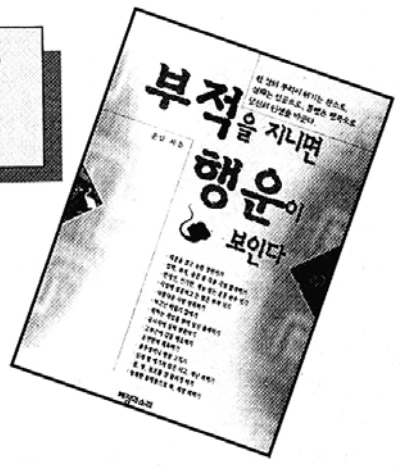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부적을 지니면 행운이 보인다

운담 지음/ 값 9,500원

아직도 부적을 돈으로 사십니까 ?
"원하는 부적을 오려서 지니세요."



한장의 부적이
위기는 찬스로,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값 12,000원

생명공학과 부적
박지명 엮음/ 값 18,000원

도서출판 깨침의 소리 전화: 02)444-3575 총판 운주사 02)720-9372